믿음 · 정성 · 희망
박운종 세무회계 사무소
TAX ACCOUNTING & CONSULTING SERVICE
•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세무서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
• 의정부 조사1과(법인조사)
031)872-6116
016-684-2400
의정부시 의정부3동 98-2 유성B/D 3층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새포천고속관광(주)
Tel: 031)544-8888

포천시 알리는 각종 활동 기대

영화배우 권용운 포천시 홍보대사 위촉

포천시는 4월5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영화배우 권용운씨(40)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권씨는 앞으로 포천시를 알리기 위해 각종 지면광고와 CF, 캠페인 등을 통해 포천을 알리고 대외적인 시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각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권씨는 1986년 영화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데뷔해 '투캅스',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주몽' 등으로 인기를 모았다.

시 관계자는 영화배우로서의 높은 인지도 등을 고려해 포천출신인 권용운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포천시 홍보대사로는 지난 2004년 위촉된 유인촌 씨와 김용만 씨, 2006년도에 위촉된 개그맨 이승환 씨가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영화배우 권용운 씨가 포천시 네번째 홍보대사로서 이들과 함께 활약하게 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문위원 구독자 확보 앞장서자"

제20차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지난 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20차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회 1/4분기 재무보고 및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작은 힘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된다. 포천신문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여러해 동안 자비로 신문을 발행해 왔다"며 "사주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 스스로가 구독자를 확보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호열 본지 발행인은 "포천사회 리더분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고 신문지면 기고를 통해 신문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문위원들이 단소리, 쓴소리 가리지 않고 지적해 주어 포천신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중기 위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새벽에 청소하는 사람도 많다. 포천신문사에서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보용 위원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포천이라는 글자만 봐도 반갑고 꼼꼼히 본다.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은 부족하지만 친구들을 만나면 포천신문을 구독하는지 먼저 물어본다. 주위 사람들에게 신문을 보라고 권장도 해야겠지만 흥미를 유발하는 기사를 많이 게재했으면 한다. 포천지역내 자랑거리, 칭찬, 효자효부 등이 기사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병업 명예고문

그동안 최호열 발행인이 고생 많이 했다. 미담기사 발굴을 더 했으면 한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봉사단체이다. 포천신문에 기사가 나간 후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하재인 위원

한미FTA 체결이후 우리지역 농민, 축산농가 현황이 어떠한지 취재했으면 한다. 또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취재했으면 한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임원회의 개최

포천신문 조사위원회(위원장 조정선) 임원회의가 4월5일 김종현 고문, 최호열 발행인과 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구독자 확보의 건, 수련대회 개최의 건 등이 논의됐다. 정기회의 때마다 각 위원에게 구독신청서를 10~20부씩 배부해 구독자를 확보하고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한 위원에게 연말에 시상하기로 했다.

또 포천시가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으니 서로 힘을 합하면 안될 일이 없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김종현 조사위원회 고문은 "각 읍면동 조직을 강화해 나가고 취약지역에 2명 이상씩 조사위원을 확보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정관에 의해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과 회비 미납 위원들은 정리하고 통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호열 발행인은 "조사위원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다양한 조사 및 취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내용으로 제보 및 취재활동에 도움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동 적십자 봉사단 독거노인 세탁봉사

포천동 적십자 봉사단(회장 이병례)은 3월20일 관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세탁봉사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서 대형트럭에 세탁기 5대를 싣고 와서 이불 30채와 옷 50벌을 세탁하고 건조시켜 배달하는 식으로 이날 봉사활동은 진행됐다.

겨우내 찌들었던 이불, 환경이 좋지 않아 건조하기 힘들었던 대형 세탁물, 여유 롭지 않아 세탁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짐을 적십자사 봉사회가 나서서 해결해 준 것이다.

이날 세탁봉사로 도움을 받은 한 독거노인은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불 빨래를 하게 되어 단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도움을 주신 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포천동 적십자 봉사단은 이밖에도 관내 구석구석을 궂은 일을 마다 하지 않고 찾아 봉사하고 있으며 식당에서는 잔치국수를 만들어 동사무소 전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식사로 봉사해주는등 함께 만들어 가는 밝은 사회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장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⑩ 꺅도요 [common snipe]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먹이감 사냥'

오늘은 이름도 재미있는 꺅도요를 소개합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포천시 소흘하수처리장 부근의 하천 덤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더니 물가로 그 형체를 드러냅니다.

자세히 보니 부리가 유난히도 긴 꺅도요라는 놈이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불쑥 두 마리가 더 나타났다. 결국 3마리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나는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짙은 갈색계열의 몸 색깔이 땅위에 있는 꺅도요를 절묘하게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깃의 색깔과 무늬가 분청사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미세한 움직임은 제 쌍안경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요. 제가 움직이지 않고 숨어서 관찰을 하였더니,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꺅도요는 조금씩 움직이며 덤불 속을 뒤지며 먹이활동을 시작하는데, 꺅도요의 부리가 너무 길어서 목표물을 정확히 사냥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덤불 속을 쑤셔대고 있더군요. 아마 이런 동작은 지렁이나 벌레 같은 것을 쑤셔대다가 꼼지락거리고 움직이면 그때 먹이를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꺅도요는 영명에도 나타나지만 snipe (저격하다) 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먹이감을 사냥한다는 뜻이라네요.

꺅도요는 몸길이가 27cm 정도 되는 도요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긴 부리와 머리의 가운데쪽으로 쏠려 있는 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눈이 약간 뒤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꺅도요는 360도에 가까운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아오를 때는 '차잇' 또는 '갓' 하고 울며, 무논이나 연못, 습지, 강가 등지에서 서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과 가을에 흔히 지나가는 나그네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꺅도요와 비슷한 바늘꼬리도요, 꺅도요 사촌, 큰꺅도요, 청도요, 꼬마도요, 멧도요 등이 있으나 워낙 비슷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2006 . 04 . 20 포천시 소흘읍 촬영

올해는 겨울이 유난히 따뜻한 탓인지 지난 2월에도 포천川 선단동 부근에서도 3마리가 잠시 관찰된 사례가 있었는데, 가끔씩 월동하는 꺅도요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텃새화 되어 가는 개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은 그들의 독특한 위장색과 행동특성 때문에 자신들은 감쪽같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며 능청스럽게 꼼짝도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

꺅도요는 다른 새들보다는 경계심이 덜한 편이어서 멀리서 쌍안경으로 관찰한 뒤 조금씩 접근하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도 쉽게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진하기도 하고 참으로 재미있는 새입니다. 그동안 우리고장 포천천에서 꺅도요를 관찰한 결과 하천 근처에 그들의 몸을 숨길 수 있는 둔덕이나 은폐물이 있어야 하고 특히 하천 근처의 무논을 좋아하는데, 이젠 정말 농약 살포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천생태연구회
회장 이상일
017-705-0994

안전한 전기사용 365일 생활화

안 병 호
대표이사

전기특급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전기 신규신청 · 각종 대관업무 상담

♠변압기 절연유 실험

♠변압기 부하 점검

회사명 :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TEL : 031)541-9111~4 FAX : 031)541-9115